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2024년 제105호
2024.05.09.(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통상** 美,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중국産 흑연 2년간 유예 조치 발표
- 중국·물류** 中 기업, 베트남·멕시코 통한 對美 우회 수출 물량 4년간 2배 증가
- EU·전기차** EU, 中 전기차 업체의 보조금 조사 비협조에 고관세 부과 가능성 경고
- EU·화학** EU 집행위, EU 유해화학물질 필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비철금속** 美 상무부, 한국産 등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원자재 뉴스 PLUS

- 철강** 전기차 생산 증가로 미국 內 전기강판 수요 증가세

II. 월간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전략 -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개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EU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내용

IV. 공급망 소식통



2024 KOTRA X 아마존코리아 북미 콜드체인 물류지원 특별사업 소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美,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중국産 흑연 2년간 유예 조치 발표

☐ 美 정부는 5.3일(현지시간) IRA 친환경차 세액 공제 최종 가이드스(30D)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중국産 흑연 사용 금지의 유예 조치를 적용

☞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을 2년간 유예

* 기존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배터리 부품은 '24년,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 금지

☞ 또한, 적격광물 산정 방식의 경우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한국의 경우 중국産 흑연 사용의 한시적 허용을 요청해 온 바, 동 규정의 실현으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다만, 관련 업계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 제시 필요

핵심 키워드

IRA

해외우려기관

흑연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05.04), 한국경제('24.05.0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중국, 물류 中 기업, 베트남·멕시코 통한 對美 우회 수출 물량 4년간 2배 증가

☐ 5.6일 발표한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규모는 각각 두 배가량* 증가

* (베트남 → 美 우회 수출액) 15.7억 달러('18년) → 30.2억 달러('22년) / (멕시코 → 美 우회 수출액) 53억 달러('18년) → 105.5억 달러('22년)

☞ 상기 수치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산업연관표(ADB MRIO)를 바탕으로 국가 간 중간재 수출 흐름을 분석하여 추정

☞ 美 세관의 우회 수출 통관 거부 사례도 점차 증가 중이며 특히 '22.10월부터 '24.3월까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 중 제조업 소재·부품의 95.1%가 통관 거부

핵심 키워드

우회수출

대중제재

출처: 무역협회('24.05.07), 한국경제('24.05.0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U, 전기차 EU, 中 전기차 업체의 보조금 조사 비협조에 고관세 부과 가능성 경고

5.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조사 대상인 中 전기차 기업 3개사*에 핵심 정보 접근 거부를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

* 비야디(BYD)·상하이자동차(SAIC)·지리자동차(Geely) 등

집행위는 지속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기반하여 상기 업체들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EU 기본조약 제28조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정보는 무시되고 이용가능한 사실을 활용 가능

집행위 관계자는 5.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가 순항 중이며, 여름 휴가철 이전 잠정 결론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상하이자동차는 “집행위가 요구하는 재무 정보의 제공을 관계사(폭스바겐 등)에 강제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 소명은 충분히 했다”며 반박

핵심 키워드

전기차

역외보조금

출처: 로이터통신(24.05.03), KBA Europe(24.05.0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U, 화학 EU 집행위, EU 유해화학물질 필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4.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관보에 과불화합물(PFAS) 등 유해화학물질의 필수적 사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게재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에 제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과 필수 사용 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추후 EU 화학 관련 법안 제정 시 적용할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필수 사용 물질로 간주하고, 기업은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토록 조치 예정

* ① 건강·안전상 필요하거나, 사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 ② 해당 물질 외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경우

핵심 키워드

유해화학물질

과불화합물

출처: 집행위 보도자료(24.04.22), EU 주간 브리핑 24-23호(24.05.0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비철금속 美 상무부, 한국産 등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5.2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에 관한 예비 판결 내용을 美 국제무역청(IT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베트남·콜롬비아·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이탈리아·말레이시아·대만·태국·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22년 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액은 약 7,700만 달러로, 美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액의 1.5%를 차지

국별 덤핑마진 예비 판결 결과

국가명	대상 기업 수 (제조사 기준)	덤핑마진
UAE	10개	9.13~42.29%
대만	5개	0.73%*~67.86% * de minimis
말레이시아	5개	26.70~27.51%
멕시코	5개	9.18~18.07%
베트남	28개	2.85~41.84%
에콰도르	2개	17.23~51.20%
이탈리아	7개	15.30~41.67%
인도	13개	3.44~39.05%
인도네시아	3개	5.66~112.21%
중국	21개	4.91~376.85%
콜롬비아	2개	8.85~34.47%
태국	2개	2.02~4.04%
튀르키예	9개	45.41~605.72%
한국	10개	0.00~43.56%

[자료원]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판결 일정

반덤핑 예비 판정
(‘24.5.2)

반덤핑 최종 판정
(‘24.7.15)

USITC* 산업 피해 최종 판정
(‘24.8.29)
* 美 국제무역위원회

관세부와 명령
(‘24.9.5)^{예정}

- (조사 배경) '23.10월 美 알루미늄 압출연합·철강노조 조사 요청
- (조사 대상) '22.10월~'23.9월 美로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재

향후 전망

산업부는 “한국産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체적 영향에 대해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 언급

핵심 키워드

알루미늄

반덤핑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05.03), 위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4호('24.05.02) 등 언론보도 KOTRA 위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넛

철강

전기차 생산 증가로 미국 내 전기강판 수요 증가세

최근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설 수요 및 전기차 생산 증가 등으로 미국 전기강판 시장 규모는 향후 8년간 연평균 7.1% 증가* 전망 출처: KOTRA 시카고무역관 종합

* '32년 기준 73억 달러(약 9조 9,000억 원)

미국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입 대상국 1위는 한국(62%)이며, 방향성 전기강판의 경우 1위 일본(44.2%), 2위 한국(39.4%)으로, 특히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년 대비 '23년 수입량이 57%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 증가세 지속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1주)

비철금속 | 거래소 재고량 감소로 동 가격↑, 공급과잉에 따른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4.4주	5.1주	전주비(%)
동	8,478	8,703	2.7	9,749	9,819	0.7
니켈	21,474	17,001	△20.8	18,964	18,775	△1.0
아연	2,647	2,520	△4.8	2,808	2,878	2.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런던금속거래소(LME)의 5월 1주차 동 재고량은 115,515톤으로 전주 대비 3.9% 감소하며 전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니켈) 인니 니켈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세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철강

주요 생산기업의 생산실적 부진에 따른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4.4주	5.1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8.71	△25.7	136.10	145.95	7.2
원료탄	295.71	291.82	△1.3	243.90	241.44	△1.0
철광석	119.32	121.61	1.9	117.25	117.40	0.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호주 사이클론에 따른 포테스큐(Fortescue) 등 기업의 철광석 생산 차질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유연탄) 중국의 호주·몽골산 석탄 수입 확대로 연료탄 가격 증가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1주)

희소금속 | 中 내수가 상승으로 페로망간 가격↑, 中 노동절 연휴에 따른 수요 증가로 희토류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4.4주	5.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20	△11.5	1,080	1,250	15.7
탄산리튬	35,697	14,434	△59.6	15,229	15,234	0.03
수산화리튬	37,972	12,959	△65.9	14,264	14,269	0.03
코발트 (U\$/lb)	17.82	17.02	△4.5	17.11	16.80	△1.8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4,949	△16.7	281,100	283,500	0.9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552	△30.4	55,060	56,500	2.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원료 비용의 급증 및 낮은 현물 공급량으로 제안가가 상승하며 전주 대비 가격 급증
 - 75%급 페로망간의 中 내수가는 4.30일 기준 7,275위안/톤으로 전주 대비 약 17.3% 상승, 이에 대한 영향으로 수출가는 1,250달러/톤으로 전주 대비 약 15.7% 상승
-  (코발트) 유럽 금속가는 중국産 저가 코발트의 지속적 유입으로 하락세 지속
-  (희토류) 中 노동절 연휴 맞이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공급량 감소로 가격 상승

에너지 | 美 금리 인하 지연 우려,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	4.4주	5.1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83.27	1.17	88.27	87.34	△0.93
브렌트유	82.17	83.62	1.45	88.39	85.84	△2.55
WTI	77.60	78.88	1.28	83.29	80.63	△2.66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美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유가 하락세 시현

- 美 연준은 4.30일~5.1일(현지시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6차례 연속 동결하며, 보다 오래 금리를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4.26일 기준 美 상업 원유 재고는 4억 6,089만 배럴로 전주 대비 726.5만 배럴 증가

월간 공급망

◆ 기후변화 대응 전략 -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개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소현 부장

'19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이하 EC)는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Fit for 55,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등 12가지의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 '24.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5개의 기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5가지는 에코디자인 규정안(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s, ESPR), 소비자 수리권 보장 지침,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s, CSDDD),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합의안(PPWR)과 넷제로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NZIA) 이다. 아직 마지막 EU 이사회 승인이 남았지만, 현 기조로 비춰봤을 때 이 법안들은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및 국내기업들의 대유럽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에코디자인 규정안과 소비자 수리권 보장 지침, 그리고 공급망 실사지침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3개의 법안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과 사회 그리고 투명성과 디지털 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지침과 함께 에코디자인 규정안은 환경 부분에서도 순환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순환자원의 연장선상에서 소비자 수리권 보장이 필수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EU 역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관해서,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및 원료 비중, 내구성, 수리 용이성, 환경(탄소)발자국, 에너지 효율 등의 기후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거래되는 제품마다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도입하여,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 그리고 재활용까지의 제품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입, 제품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나 바코드 (고유생성번호) 또는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는 NFC칩 등을 통해 제품의 기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내구성과 더불어 소비자의 수리권 또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EC 본회의에서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이하, 수리지침)이 통과되었고, 동 지침은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 아니라,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제품 디자인 기획, 제품 설계 및 R&D 과정에서부터 에코디자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제품 및 재료의 순환과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제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에 사용하던 에코라벨 등 친환경 인증에 따른 기준도 재검토될 예정이며, 제품 관련 세부 규칙은 에코디자인 규정이 환경 관련 필수 요구사항들의 정의를 포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미판매 제품을 단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매년 재고 수량을 보고할 의무가 부여될 뿐 아니라, 폐기 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만약 기업이 재고 처리를 위해 제품을 폐기할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 원칙에 기반하여 기업은 연간 폐기 제품의 유형별 수량·중량과 함께 후속 폐기물 처리 작업을 위한 납품 정보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에코디자인의 적용 대상은 제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EU 역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판매업체도 및 대리인, 중개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까지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제품 제조업체는 EU 내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국내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 중, EU로 수출하는 업체 그리고 이를 수입하는 EU 내 업체 모두 에코디자인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

그리고 DPP를 통해 공개 및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품정보 및 사양(제품 크기, 색상, 생산수량, 수선서비스 내용, 제품 폐기 방법 등), ▲제품 재활용 소재 구성 비율, ▲공급망(원산지), ▲운송수단 및 거리, ▲운송사, ▲유통망 등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제한적 수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관련 정보는 공개될 예정이다. 즉, EU와 교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과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된 온실가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

기업의 직·간접 배출량에 대해서도 조직의 경계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연결공시의 기반인 국내외 법인·사업장 및 종속기업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할 경우 공시하는 프로세스는 복잡할 뿐 아니라, 많은 공수가 든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기후와 관련된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 데이터 산정과 모니터링 그리고 이를 추적 가능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탄소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뿐 아니라, 이를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과 연계한 감축량 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산정 및 정보공개는 현재 국내업체들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의무공시에서도 유예된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인 Scope 3 산정 및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EPR에서 요구될 운송에 따른 배출량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라도 탄소배출량이라는 정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달된 데이터 및 산정방법에 대한 신뢰성 및 검증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소발자국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EPR뿐 아니라, 이미 도입된 탄소국경조정제도

(Cross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및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량 관리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EU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다면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후에는 EU 집행위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22년 처음 에코디자인 규정이 지침으로 정비되었을 때는 섬유(직물),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강)철 및 알루미늄, 건설제품(건축소재), 시멘트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식 규정으로 통과되면서 전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코디자인 규제 체제는 유럽표준뿐 아니라 국제표준도 존재하고, EU 회원국 간에 제품군별 상이한 법규를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상품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침에서 규정으로 상정된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런 EU의 움직임에 따라 탄소발자국과 폐기물 및 재활용에 대한 추적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기업들 또한 통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지속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고 있어, 기후관련 데이터 관리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은 불가피하다. 이런 면에서 국내기업들은 미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탄소발자국 그리고 물과 에너지의 사용량, 더 나아가 재활용율과 폐기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에 따른 감축방안 및 세부전략을 세워 지속가능한 경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EU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내용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4.4.15)

'24년 3.18일 EU는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역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U 핵심원자재법의 제정 배경

- 주요 에너지 및 자원 부존국*의 자원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美·中 분쟁,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등에 따라 **핵심원자재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

*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 중동 및 중남미 국가 등

- 아울러,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EU의 핵심원자재 수요 증가와 더불어 산업 가치사슬, 전략적 기술(우주, 국방 등) 개발, 기후·에너지·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원자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모든 산업 공급망의 쏠 단계와 핵심원자재는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 국방 등 전략적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발달은 핵심원자재 종류의 변화와 증가에 의존
 - 역내 기후·에너지·환경 목표 달성에 있어 청정e 기술 및 제품 생산에는 핵심원자재가 필수적인데, 특히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기차, 고효율 조명 등에 투입되는 **핵심원자재는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능**
- 이에 EU는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제정**

EU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내용

① 핵심 및 전략 원자재의 목록 작성과 주기적 갱신

- 핵심원자재법은 **재생에너지, 디지털, 우주,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34종을 핵심원자재***로 지정하고, 이 중 공급 우려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7종을 **전략원자재****로 지정하며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

* (**핵심원자재**) 전략원자재 17종과 점결탄(원료탄), 인, 안티모니, 장석, 스칸듐, 비소, 형석, 마그네슘, 중정석, 스트론튬, 베릴륨, 탄탈럼, 하프늄, 니오븀, 헬륨, 인광석, 바나듐

** (**전략원자재**) 알루미늄/보크사이트/알루미나, 리튬, 경희토류, 금속 규소(silicon metal), 갈륨, 망간, 게르마늄, 천연흑연, 비스무트, 티타늄, 붕소, 백금족 금속(백금, 팔라듐, 로듐, 이리듐, 루테튬, 오스뮴), 텅스텐, 코발트, 중희토류, 구리, 니켈

② 핵심원자재의 역내 공급 채굴·가공·재활용 목표 설정

- (목표) 핵심원자재의 **역내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30년까지 △ EU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최소 10%**, △ **정제·가공 최소 40%**, **재활용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략원자재를 **역내 조달**하고, △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 대비 최소 65% 미만으로 감축**

③ 전략적 프로젝트의 선정 및 지원

- EU의 전략적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와 이사회가 △ 전략원자재의 공급 안보 기여도, △ 기술적 타당성, △ 지속가능성(ESG 책임 준수), △ 역내 회원국 또는 해외 파트너의 공동 이익 기여도 등을 토대로 선정하며, EU와 회원국 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과 금융지원이 제공
 - ▶ (범위) 전략원자재를 대체하는 재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역외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도 전략적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역외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신흥시장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 EU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파트너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해당
 - ▶ (혜택) 신속한 허가 절차와 전략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와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단일창구 서비스(single points of contact)를 제공받음
 - ▶ (금융지원) 기존의 EU와 회원국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기금 조성, EU 수출신용기관* 설립, EU의 다년간 금융프레임워크**에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한 지원도 모색

* 역내 기업이 핵심원자재법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EU의 장기(7년 단위) 예산계획으로 EU 예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988년에 도입

④ 공급망 안정 거버넌스 구축과 공급 위험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거버넌스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략적 프로젝트의 신청 평가,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핵심 및 전략 원자재 목록 갱신, 기업 및 회원국의 이행상황 점검
 - ▶ 또한, 해외시장에서 회원국 간 구매경쟁을 억제하고, 공동 구매를 추진하여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
- (모니터링 강화) 핵심원자재 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 핵심원자재의 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⑤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순환성) 2차 원자재 생산 증대를 위해 회원국별 재활용 제도를 개선하고, 핵심원자재 회수율 제고를 고려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고, 핵심원자재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된 제품뿐만 아니라 광산 폐기물의 관리도 강화
- (지속가능성) 핵심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EU집행위는 환경 발자국의 계산 및 검증 시스템을 '26년까지 구축하고, 이에 근거해서 역내 핵심원자재 공급기업에 대해 핵심원자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선언서 제출 및 공시를 의무화

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조달 가능성 향상을 위해 핵심원자재 생산국과 주요 소비국을 상호 연결하는 핵심원자재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을 구축하고 확대
 - ▶ EU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핵심원자재클럽 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
- 지속가능한 투자촉진협정(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s)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WTO와 같은 무역 규제를 활용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강화

공급망 소식통

작성 KOTRA 수출역량강화실

2024 KOTRA X 아마존코리아 북미 콜드체인 물류지원 특별사업 소개

KOTRA는 아마존코리아와 협업하여 해외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3PL)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4.5.1. ~ '24.10.31
- 지원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규모 : 30여개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미국으로 냉동·냉장 제품 수출 중(예정 포함)이며, 현지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아마존 입점에 관심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 방식	➡ 매칭펀드로 지원 (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중견기업(50%), VAT 포함)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 (총 20단계 중 택일)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 원 ~ 600만 원	50만 원 ~ 1,000만 원	최소 100만 원	
	국고지원(B)	70만 원 ~ 1,400만 원	50만 원 ~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신청 무역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뉴욕무역관				1개사 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지원 사항	➡ 현지 창고·포장·배송·반품·통관·수입대행 등 콜드체인 물류 및 식품 수입 인증지원 ▶ 북미 아마존(식품 카테고리) 입점 지원				-
주의사항	➡ 참가비 환불 불가 및 미소진 시 차년도 공동물류사업 참가에 불이익 ➡ 동일무역관 국고지원 선정기업은 신청 불가, 국고 미지원 기업은 신청 가능 ➡ 항공·해상 등 국제운송비 미지원 (필요시 해당 물류사와 직접 정산) ➡ [설문작성링크] 에서 설문작성 필수* * 아마존 입점 희망여부 선택가능(단, 아마존 입점 선택 시 필수 입점)				-

사업 신청·문의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참가업체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서 체결 → 사업지원 개시
* 제출서류, 기업선정 등 세부 내용은 KOTRA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 7430 / 7435

글로벌 경제지표 ['24.5.7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5/2	5/3	5/7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75.90	1,362.80	1,360.10	△0.20%	5.60%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79.90	1,360.50	1,357.60	△0.21%	5.50%
₩/CNY	181.44	181.37	185.10	189.98	188.23	188.49	0.14%	3.93%
₩/¥100	945.56	912.25	888.91	885.79	890.25	880.49	△1.10%	△3.48%
¥/U\$	133.73	141.19	149.79	155.33	153.08	154.47	0.91%	9.41%
U\$/EUR€	1.0617	1.1105	1.0835	1.0720	1.0733	1.0757	0.22%	△3.13%
CNY/U\$	6.9630	7.1092	7.1938	7.2401	7.2401	7.2171	△0.32%	1.52%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40.5원, (₩/¥100) 894.5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5/6	5/7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4.02	84.12	0.1	13.8	7.0
					0.1%	19.6%	9.1%
철광석	97.35(5.24일)	140.50	120.20	118.75	△1.5	21.4	△21.8
					△1.2%	22.0%	△15.5%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737.00	110.0	2,034.5	1,371.0
					1.1%	26.0%	16.2%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17.00	△4.5	444.0	177.0
					△0.2%	21.5%	7.6%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8,760.00	△5.0	2,870.0	2,455.0
					△0.03%	18.1%	15.1%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5/2*	5/3*	5/6	5월(~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5	1.95	1.95	1.95
(%, YoY)	29.9%	△23.0%	△14.8%	△3.6%	6.6%	20.5%	20.5%	21.1%	23.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9	6.39	6.39	6.39
(%, YoY)	14.7%	10.7%	△2.3%	△1.9%	△0.7%	△0.2%	△0.2%	△0.2%	0.0%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12/30('22년)	12/29('23년)	4/12	4/19	4/26	전주비(4/19)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1757.04	1769.54	1940.63	9.7%	10.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12/23('22년)	12/22('23년)	1/1	5/1	5/2	5/3	5/7	전주비(5/3)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688	1774	1876	2083	11.0%	△0.5%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02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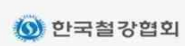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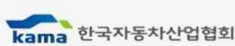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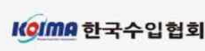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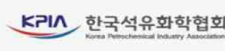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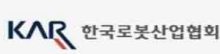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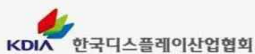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